

기혼여성의 피임행위 예측을 위한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검증 연구

김 명 희*·백 경 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인공임신 중절수는 매년 정상적으로 출생하는 아이의 두배에 가까운 실정에 있으며 매해 증가하여 출생 100명당 인공 임신 중절 비율이 1970-1974년 기간에 26.0%이던 것이 1985~1991년에는 76.0%로 급격히 상승하였다(문 등, 1993; 홍, 이, 장, 오와 계, 1994). 이렇듯 인공 유산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이 인구증가억제에 역점을 두었으며 피임지식의 확대와 피임상담 서비스에는 소홀하여 대상자가 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없이 피임법을 사용하거나 지속적이지 않은 피임사용으로 비계획적인 임신을 증가시켰고, 원하지 않는 임신은 대부분 인공 유산으로 종결되는 경향이다(박, 1985; 조, 1991; 최, 1985). 여성건강 측면에서 불태 인공유산은 출혈, 부종, 복통 및 요통, 감염, 습관성 유산, 불임 등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야기하며, 심지어는 사망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다(조, 1991). 그러므로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공 유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의 발생을 막는 피임이 실행되어야 하고, 가임 여성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피임 행위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

가 요구된다.

최근 건강교육(health education)은 건강행위이론을 사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행위이론은 인간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건강행위가 영향을 받는 방식, 과정, 혹은 기전에 대한 서술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가장 잘 개발되어진 행위이론 중의 하나인 Ajzen(1985)의 계획적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이후 TPB)에 근거하여 기혼여성의 피임행위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행위에 영향을 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김, 1995).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고안된 Ajzen(1985)의 계획적 행위이론을 근거로 TPB의 결정요인이 피임행위를 설명, 예측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피임행위 영역에서 이 모델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므로써 피임행위 조절에 결정인자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간호중재를 위한 방향을 확인하고자 TPB 모델검증을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의 피임행위를 설명하고

*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예측하기 위하여 TPB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TPB(Version II)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 1)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피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3) 피임의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연구 가설

연구목적에 따라 TPB(Version II)에 근거하여 도출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간에는 순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태도는 피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피임의도를 증가시킴으로서 피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피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피임의도를 증가시킴으로서 피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피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피임의도를 증가시킴으로서 피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 기혼여성의 피임의도는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 정의

1) 피임행위

일시적인 피임방법이나 영구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여 임신을 피하는 행위(김과정, 1992)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당시의 대상자의 피임행위 상태를 의미한다.

2) 피임에 대한 태도

개인이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내리는 긍정

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Ajzen, 1991)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임신을 원치 않는 기혼 여성이 피임행위 이행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이다.

3)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

특정행위의 수행여부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Ajzen, 1991)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임신을 원치 않는 기혼여성이 피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압력 정도이다.

4) 피임행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개인이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각하는 난이성(ease or difficulty)의 정도(Ajzen, 1991)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임신을 원치 않는 기혼여성이 피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각하는 난이성의 정도이다.

5) 피임 의도

특정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사정도(Ajzen, 1991)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임신을 원치 않는 기혼여성이 피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의사이다.

II. 문헌 고찰

1. 피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ruyniks(1994)는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이유나 어떤 도덕적, 종교적, 윤리적인 측면을 배제할지라도 인공유산은 여성건강을 고려할 때 중지되어야 하며 인공유산이 피임법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이 현대적 피임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만으로는 피임 행위를 야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사용 가능한 많은 다른 피임법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Oakley(1994)는 효과적인 피임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카운셀링 모형으로 대상자에게 피임에 대한 지식, 동기, 능력, 의도를 주므로서 피임사용방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피임사용과 관련된 카운셀링에서는 행위 이론에서 제시된 행위의 결정인자가 되는 개념들을 고려해야 하며 피임행위 수행에 대한 능력이나 의도의 사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Zotti와 Siegel(1995)은 정확하고 올바른 피임방법의 사용이 여성의 비계획적 임신

을 예방하나 지속적인 피임법 사용은 인구사회학적, 문화적,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선택한 피임법 사용상의 문제와 같은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임신, 피임, 특정 피임 방법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규범적 요소에 의해 피임행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피임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연구에서 Neal과 Groat(1977)은 32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피임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피임행위의 사결정에 있어 아내만큼이나 남편의 의사가 중요한 결정인자라고 보고하였으나 Townes, Beach, Campbell과 Martin(1977)은 피임행위에 있어 아내의 결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하여 Neal과 Groat(1977)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Beckman, Aizenberg, Forsythe와 Day(1983)은 578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피임에 대한 아내와 남편의 태도와 의도의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앞으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인의 의도만이 피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Severy와 Silver(1993)는 아내, 남편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협상된 반응이 피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아내와 남편의 협상된 반응이 피임태도에 가장 예측적임을 제시하며 피임서비스는 부부를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TPB에 의하면 행동을 시행할 의도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Ajzen, 1991)고 하였는데, 피임행위의 결정인자로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문헌으로 Sawyer와 Beck(1988)은 여성이 효과적인 피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과는 관계가 없으며, 성에 대한 여성의 태도와 관련 있음을 지적하였고, Bandura(1986)는 행위적 기술에서의 낮은 효능감(efficacy)은 요구되는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며, Levinson(1995)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행위 기술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여성이 더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헌고찰 결과 피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태도, 사회적 영향(남편의 의사), 행위 기술의 효능, 피임에 대한 동기가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바람직한 행위변화를 위해서는 행위의 결정인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계획적 행위이론(TPB : Theory of Planned Behavior)

질병을 예방하고 질적인 삶을 갖기 위하여 개인은 그

들의 생활양식과 건강행위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행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므로 행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건강관련 이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 1995). 본 연구에서는 특정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결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런 정보를 근거로 행위중재와 건강교육에 적용이 가능한(Carter, 1990) Ajzen(1985)의 TPB를 검증하였으므로 TPB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PB는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이후 TRA)의 확장이론으로 TRA는 1967년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이후 여러해에 걸쳐 정련되고 검증되었으며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Ajzen & Fishbein, 1980). TRA에서 인간은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며, 대부분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의지의 통제(volitional control)하에 있다는 가정을 근거로 하므로서 의지에 의한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행위들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Ajzen(1985)은 좀 더 다양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TRA에 지각된 행위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개념을 추가하여 TPB로 발전시켰다. TPB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행위에 영향을 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남,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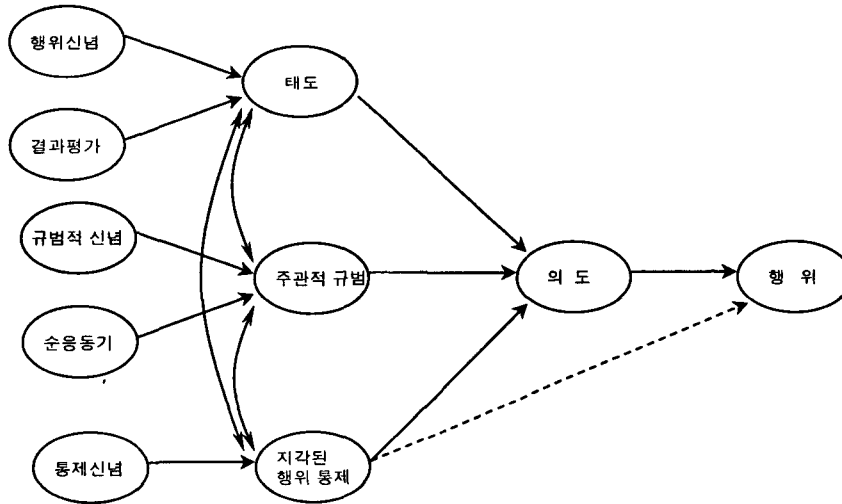
TPB의 중심요인은 주어진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intention)이며, 행위에 대한 의도의 결정요인은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및 지각된 행위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이다. 행위에 대한 태도는 행위의 수행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주관적 규범은 주어진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개인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각된 난이성을 의미하며 행위에 대한 과거의 경험과 행위를 할 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장애물 또는 방해요인을 고려한 개념이다.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위통제의 선행요인은 행위와 관련된 정보 즉 신념(beliefs)으로 의도 및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요인이 된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은 행위신념으로 행위 수행시 나타나는 결과 또는 댓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은 규범적 신념으로 개인에게 영향력 있는 친

지들이 행위의 수행을 찬성 또는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 지각된 행위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은 통제신념이며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회나 자원 및 행위수행에 방해나 장애가 되는 요인의 존재유무에 관한 신념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TPB는 행위신념과 결과 평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 그리고 통제신념이 행위와 관련된 신념으로 각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결정요인이 되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목표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의도는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인자가 되는 것이다(TPB Version I).

TPB Version I에서 행위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의 영향이 의도에 의해 완전히 중재됨을 가정하며, 의도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요인임을 가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TPB Version II에서는 지각된 행위 통제와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의 가능성을 고려한

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의 행위 수행은 동기적 요소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에도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TPB Version II는 지각된 행위 통제가 의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직접적으로 행위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각된 행위통제와 실제 행위통제는 일치할 수도 있으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조건의 존재여부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가에 따라 지각된 행위 통제의 행위에 대한 설명력은 달라진다(Ajzen & Madden, 1986). Ajzen(1985)은 지각된 행위 통제와 행위를 연결하는 경로는 지각된 행위통제와 실제 행위통제 사이에 어느정도 일치가 될 때에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에서 점선으로 표시하였다(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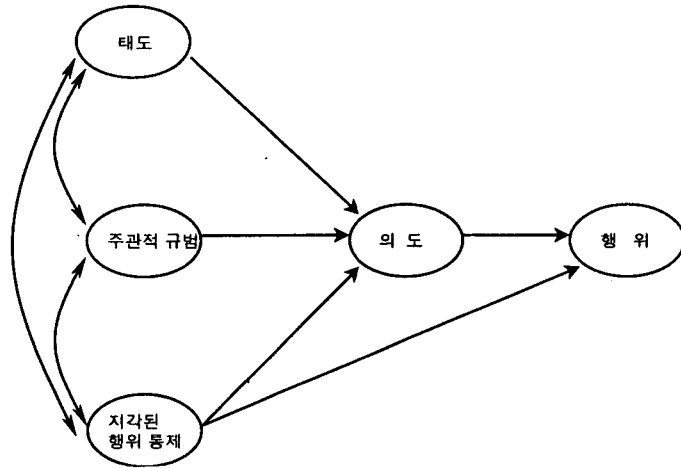
〈도표 1〉 Theory of Planned Behavior(Version II)

일반적인 관점에서 관심의 특정영역에 대한 TPB의 적용은 행위를 이해하거나 행위를 변경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적용에 유용한 많은 정보를 제시한다(Ajzen, 1991).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와 가설적 모형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피임행위를 예측하기 위하여 TPB를 이론적 틀로 하여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의도와 지각된 행위통제가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cross-sectional survey)로서 TPB Version II에 근거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도표 2〉와 같다.



〈도표 2〉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표집하였으며, 1996년 7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강북구 보건소, 서울시내 2곳의 조산원,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4곳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모집한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택기준은 ① 20세에서 39세의 기혼여성 ② 현재 임신을 원치 않는자 ③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 ④ 설문지의 응답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를 수락한 자로 하였으며, 연구 당시 임신을 할 계획이거나 임신중인 자와 대상자 자신이나 남편(부부중 1인)이 연구 불일치를 실시한 자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3. 연구도구 및 측정방법

TPB의 제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Ajzen과 Fishbein(1980)이 제시한 지침과 Ajzen과 Madden(1986)이 TPB 검증을 위한 질문지 작성방법에 의거하여 TPB 도구 개발을 한 지(1993)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을 본 연구의 목표행위인 피임행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Ajzen과 Fishbein(1980)은 각 변인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신념에 의거한 측정(belief-based measure)과 직접적인 측정방법인 전반적 측정(global measure)를 제시하였는데 최근의 연구경향은 TPB이론의 변인 측정방법으로서 직접적 측정방법과 간접적인

측정방법을 상호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사용하고 있다(Burzette, 1994).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방법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1) 피임행위에 대한 태도

피임행위에 대한 태도는 피임행위에 대한 평가적 차원의 semantic differential scale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태도 측정 도구는 피임하는 것이 ;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 않다, 해롭다-이롭다, 필요하다-필요하지 않다, 중요하다-중요하지 않음을 포함한다. 각 형용사의 짝 사이에 -3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배점하였다. 각 문항의 배치는 고정반응을 줄이기 위해 해롭다-이롭다의 한 문항은 역순으로 배열하였다. 전체 태도 측정치는 4문항의 점수에 대한 합으로 최저 -12점에서 최고 12점까지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행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72이었다.

2) 피임 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

피임행위를 수행하는데 대해서 주위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압력 정도를 묻는 7점 Likert type scale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문항은 부인이 생각하는 남편에 대한 규범적 신념과 일반적인 규범적 신념을 묻는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3점)에서 보통이다(0점), 전혀 그렇지 않다(-3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2문항은 남편과 일반적인 규범 신념에 대해 각 대상자가 얼마나 잘 따르려

고 하는지에 대한 순응동기를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렇다(7점)에서 보통이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주관적 규범의 측정치는 각 규범적 신념과 그에 따른 순응동기를 곱한 점수에 대한 합으로 하였으며 최저 -42점에서 최고 42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65였다.

3) 피임행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피임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지각된 난이성을 묻는 7점 Likert type scale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개의 긍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3점)에서 보통이다(0점), 전혀 그렇지 않다(-3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내가 앞으로 피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인 1개의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지각된 행위 통제의 측정치는 6문항의 점수에 대한 합으로 하였으며 -18점에서 18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행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2였다.

4) 피임 의도

피임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측정하는 7점 Likert type scale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즉, '나는 앞으로 피임을 할 계획이다', '나는 앞으로 피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피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의 3개 문항으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3점)에서 보통이다(0점), 매우 그렇다(3점)으로 측정하였다. 의도에 대한 측정치는 3문항 점수에 대한 합으로 -9점에서 9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행위 의도 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93이었다.

5) 피임행위 측정도구

피임행위는 대상자가 자가보고한 피임행위 정도로 본 연구자가 대상자의 피임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만든 4문항의 7점 Likert type scale로 측정하였다. 즉, '나는 피임을 하고 있다', '나는 내가 언제 임신이 되는 시기인지 알고 피임을 하고 있다', '나는 나에게 적합한 피임법을 선택하여 피임하고 있다', '나는 내가 사용하는 피임방법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의 4개 문항으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3점)에서 보통이다(0점), 매우 그렇다(3점)으로 측정하였다. 피임행위에 대한 측정치는 4개 문항 점수에 대한 합으로 하였으며 최저 -12점에서

최고 12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4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강북구 보건소, 서울시내 2곳의 조산원,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4곳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택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모집하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미리 준비된 설문지로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거나 강북구 보건소 영유아실에 등록된 기혼여성 중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5.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여 SPSS/PC+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피임관련 변인, TPB 변인에 대하여 서술적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 2) 피임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간의 상관관계는 multiple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3) 피임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가 피임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피임의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가 피임행위에 미치는 효과의 검증은 path analysis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초 분석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9.2세로 20에서 37세까지였으며 30세 이하가 51명(63.8%)이었고, 결혼 기간은 62.5%가 5년 미만이었으며, 자녀수는 1명이 35명(43.8%), 2명 이상이 45명(56.3%)이었다. 대상자의 66.3%는 아들이 있었으며 교육정도는 71.3%(57명)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었다. 대상자의 66.3%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74명인 92.5%는 전업주부이었다. 가족의 월수입은 68.8%가 150만원 이하이었고, 31.3%는 150만원 이상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80)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연 령	30세이하	51	63.8
	31세이상	29	36.3
결혼기간	5년미만	50	62.5
	5년이상	30	37.5
자 녀 수	1명	35	43.8
	2명이상	45	56.3
아 들	없음	27	33.8
	있음	53	66.3
교육정도	고졸이하	57	71.3
	대졸이상	23	28.8
중 교	무	27	33.8
	유	53	66.3
직 업	무	74	92.5
	유	6	7.5
가 족 월 수입	150이하	55	68.8
	150초과	25	31.3

2) 대상자의 피임관련 특성

대상자의 피임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57명(71.3%)은 월경주기가 규칙적이었고, 월경간격은 86.3%가 30일 이하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피임 목적은 46명(57.5%)이 단산을 목적으로 하였고, 대상자의 63명(78.8%)이 피임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의 71명(88.8%)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66명인 82.5%는 가임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에 대해서는 56명(70.0%)이 남편이 피임에 협조적이라고 응답하였고, 14명(17.5%)이 비협조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중 37명(46.3%)은 인공유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 유산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4명(92.5%)가 해롭다고 응답했으나 원치 않는 임신시 인공유산의사를 묻는 문항에 안한다 14명(17.5%)뿐이고 모르겠다 35명(43.8%), 한다 31명(38.8%)으로 응답하였다(표 2).

3) 대상자의 피임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피임의도와 피임행위

대상자의 피임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피임의도와 피임행위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2〉 대상자의 피임관련 특성 (n=80)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월경주기	규칙적	57	71.3
	불규칙적	23	28.8
월경간격	30일이하	69	86.3
	30일초과	11	13.8
피임목적	단산	46	57.5
	기타	34	42.5
교육상담	유	17	21.3
	무	63	78.8
교육의 필요성	있다	71	88.8
	없다	9	11.3
가임기에 대한 지식	있다	14	17.5
	없다	66	82.5
피임에 대한 남편의 협조	비협조적	14	17.5
	보통	10	12.5
	협조적	56	70.0
인공유산 경험	없다	43	53.8
	있다	37	46.3
인공유산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	해롭지 않다	2	2.5
	보통이다	3	3.8
	해롭다	74	92.5
	무응답	1	1.3
원치 않는 임신시 인공유산의사	안한다	14	17.5
	모르겠다	35	43.8
	한다	31	38.8

대상자의 피임행위에 대한 태도는 4문항 합의 평균이 34로 나타나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사이의 응답을 해 피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로 보면 피임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 중요하다를 묻는 3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피임이 해로운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해롭다는 부정응답이 27명(33.8%), 보통이다 19명(23.8%), 이롭다는 긍정응답이 34명(42.4%)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가 피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나 많은 대상자(42.4%)가 피임이 몸에 해롭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주관적 규범(평균 17.73)과 지각된 행위통제(평균 7.85)도 보통이다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피임의도 역시 평균 6.39로 약간 그렇다에서 대체로 그렇다 사이의 응답을 보임으로서 피임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구 당시의 피임행위 여부를 묻는 문항인 피임행위는 평균 2.47로 보통이다와 약간 그렇다 사이의 응답을 보였다.

〈표 3〉 TPB 변인과 피임행위 (n=80)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태 도	8.34	3.33	12.00	-12.00
주관적 규범	17.73	14.78	42.00	-42.00
지각된 행위통제	7.85	6.79	18.00	-18.00
피임 의도	6.39	3.59	9.00	-9.00
피임행위	2.47	7.13	12.00	-12.00

2. 가설 검증

가설 1인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간에는 순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태도와 주관적 규범(r=0.39),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 통제(r=0.35), 태도와 지각된 행위 통제(r=0.35)는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므로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표 4).

〈표 4〉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사이의 상관관계 (n=80)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태도	0.39**	0.35**
주관적 규범		0.35**

**p<0.01

가설 2에서 가설 6까지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표 7).

가설 2인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태도는 피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피임의도를 증가시킴으로서 피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태도가 피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를 나타내지 않아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가설 3인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피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피임의도를 증가시킴으로서 피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피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β=0.23)를 나타내어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종속

변수인 피임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간접효과는 0.16으로 나타났다.

가설 4인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피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피임의도를 증가시킴으로서 피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가 피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β=0.30)를 나타내어 가설 4은 지지되었다. 종속변수인 피임행위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의 간접효과는 0.15로 나타났다.

가설 5인 ‘기혼여성의 피임의도는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기혼여성의 피임의도가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β=0.50)를 나타내어 가설 5는 지지되었다.

가설 6인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가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β=0.25)를 나타내어 가설 6은 지지되었다.

이상의 경로분석에서 피임에 대한 태도가 피임의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계수를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가 p<0.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피임의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의 경로계수 (n=80)

독립변수	β	종속변수 : 피임의도	
		t 값	p 값
태 도	0.19	1.73	0.086
주관적 규범	0.23*	2.13	0.036
지각된 행위통제	0.30**	2.78	0.007
R ² =0.30** F=10.59 p=0.000			

*p<0.05 **p<0.01

〈표 6〉 피임행위에 대한 피임의도와 지각된 행위 통제의 경로계수 (n=80)

독립변수	β	종속변수 : 피임행위	
		t 값	p 값
피임의도	0.50**	5.08	0.000
지각된 행위통제	0.25*	2.57	0.012
R ² =0.42** F=27.41 p=0.000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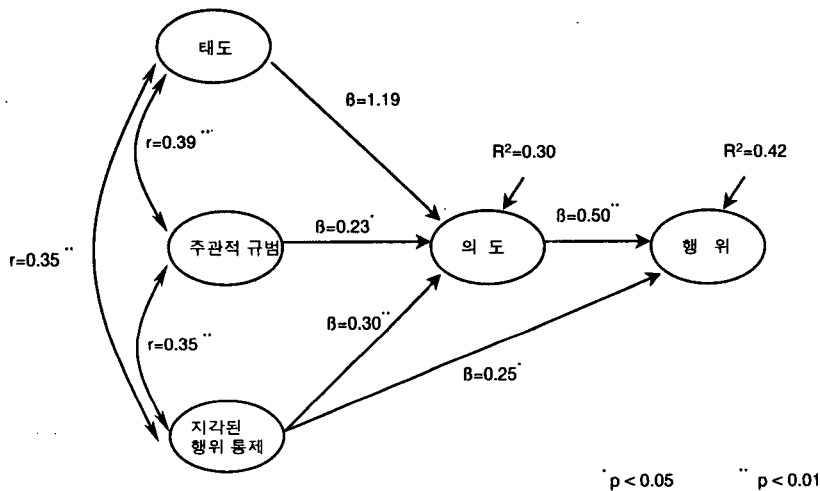
〈표 7〉 피임행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전체효과 분해결과

독립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태도	-	0.10	0.10
주관적 규범	-	0.16	0.16
지각된 행위통제	0.25	0.15	0.40
피임의도	0.50	-	0.50

이차적으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결정계수(R^2)를 보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가 피임의도를 30%($F=10.59, p=0.00$) 설명하였고, 피임의도와 지각된 행위 통제는 피임행위를 42%($F=27.41, p=0.0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인 피임행위에 대한 독립변수들(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피임의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와 합인 전체효과를 비교한 결과〈표 7〉에 제시되었듯이 의도가 피임행위 예측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 지각된 행위 통제, 주관적 규범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TPB 모형에서 제시하듯 의도가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인자임이 확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기초로 경로모형을 도식화하면 〈도표 3〉과 같다.



〈도표 3〉 피임행위에 대한 경로 모형

V. 논 의

TRA와 TRA의 확장이론인 TPB는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에 적용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TPB는 기혼 여성의 피임행위 예측에 유용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피임에 대한 태도만이 피임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는 경로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표본의 크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표본의 크기가 크면 경로계수가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한국 가족학 연구회, 1994) 표본수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 기혼 여성의 피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피임의도 예측에 30%의 설명

력을 나타내며, 피임의도의 예측변인 중 지각된 행위 통제가 피임의도에 가장 큰 영향($\beta=0.30$)을 미치는 요인이며 그 다음 주관적 규범($\beta=0.23$)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와는 선행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데, Jemmott와 Jemmott(1991)이 미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콘돔사용의 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TRA를 검증한 결과 TRA의 이론적 모형과 일관성있게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콘돔사용 의도의 변량을 62% 설명했으며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의도를 예측하기 위한 표준회귀계수는 각각 0.61과 0.30으로 콘돔 사용은 주관적 규범보다는 태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Davidson과 Jaccard(1975)가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피임약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여성의 의도를 설명하는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TRA이론을 검증한 연구에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피임의도에 대해 86%의 높은 예측력을 보였으며, 두 변인 모두 피임의도 예측에 있어 중요한 결정인자로 나타났고, 태도보다는 주관적 규범이 기혼여성의 피임의도 예측에 더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결과를 보였다. Jaccard와 Davidson(1972)이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피임약 사용에 대한 TRA를 검증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피임의도 예측에 주관적 규범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결정인자로 나타났다. Otis, Godin과 Lambert(1991)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콘돔사용의 의도를 예측하기 위해 TPB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TPB모형은 지지되었는데, 태도($\beta=0.52$), 주관적 규범($\beta=0.26$), 지각된 행위 통제($\beta=0.17$)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콘돔사용의 의도를 예측하였고, 의도 전체 변량의 48%를 설명했으며, 콘돔 사용에 대한 의도가 주관적 규범이나 지각된 행위통제보다는 태도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음을 보였다.

이와같은 선행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피임의도 예측에 있어 본 연구결과가 선행의 연구결과보다 적은 설명력을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목표행위가 구체적인 피임방법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닌 광범위한 피임행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 고려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 피임의도 예측에 있어 피임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를 나타내지 못하여 선행의 연구결과 특히 태도가 피임행위의 가장 예측력 있는 변인으로 검증된 것과는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두가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겠다. 하나는 대상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 중 Davidson과 Jaccard(197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 대상자가 아직 미혼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고, Davidson과 Jaccard(1975)의 연구와 본 연구의 대상자는 기혼여성이었다. 피임의도 예측에 있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서는 태도 변인이 가장 예측력이 컸으며 기혼여성이 대상일 경우 주관적 규범이 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는 피임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연구에서 Neal과 Groat(1977)는 32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피임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피임행위 의사결정에 있어 아내만큼이나 남편의 의사가 중요한 결정인자라고 보고한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되어진다. 그러므로 실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서비스에 있어서는 주관적 규범 요인에 대한 고려, 특히 남편이 피임에 대해 갖

는 인식 또한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즉, 우리나라 문화권은 가부장적인 사회로 피임의도나 행위에 있어 여성의 자율성이 더 큰 요소로 작용하는 태도 변인은 피임의도나 행위에 중요한 예측변인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배우자의 영향력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피임의도나 행위에 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 기혼여성의 피임행위 예측에 있어 피임의도($\beta=0.50$)뿐만 아니라 지각된 행위 통제($\beta=0.25$) 변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경로계수가 검증되어 두 변인 모두 피임행위에 직접효과를 보이는 데, 이는 TPB Version II 모델의 유용함을 입증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Fishbein, Jaccard, Davidson, Ajzen과 Loken(1980)의 연구에서 대상자가 산아조절에 대한 지식, 서비스의 접근 용이성, 효과적인 피임방법을 갖추었을 때 의도한 가족수를 통해 실제 가족수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서 어떤 의도를 갖고 행위를 수행하는데는 지식, 자원 등의 지각된 행위 통제요인이 요구된다는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각된 행위통제 변인이 경로계수 0.25로 피임의도 0.50에 비해 낮은 설명력을 갖는데 이는 Ajzen(1985)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목표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적 통제(actual control)이므로 지각된 행위통제가 이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즉, TPB의 목표행위 예측에서 설명되지 않는 변량은 지각된 행위 통제가 실제적 통제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TPB가 피임행위의 의도와 행위예측에 좋은 이론적 기틀을 제시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대한 간호중재시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피임의도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겠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피임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TPB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연구로서, 1996년 7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기간에 임의표집한 기혼여성 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도구인 TPB 변인 도구는 Ajzen과 Fishbein(1980)이 제시한 지침과 Ajzen과

Madden(1986)의 TPB 검증을 위한 질문지 작성 방법에 의거하여 도구 개발을 한 지(1993)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을 본 연구의 목표 행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피임행위 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피임 관련 제특성, TPB 변인 검사는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TPB 모델 검증은 multiple correlation과 path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인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간에는 순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태도와 주관적 규범($r=0.39$),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위 통제($r=0.35$), 태도와 지각된 행위 통제($r=0.35$)는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므로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2인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태도는 피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피임의도를 증가시킴으로서 피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태도가 피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를 나타내지 않아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가설 3인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피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피임의도를 증가시킴으로서 피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피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beta=0.23$)를 나타내어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가설 4인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피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피임의도를 증가시킴으로서 피임행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가 피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beta=0.30$)를 나타내어 가설 4은 지지되었다.

가설 5인 '기혼여성의 피임의도는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기혼여성의 피임의도가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beta=0.50$)를 나타내어 가설 5는 지지되었다.

가설 6인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피임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기혼여성의 피임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가 피임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

($\beta=0.25$)를 나타내어 가설 6은 지지되었다.

결론적으로 TPB는 피임행위 예측에 유용한 모델이며 피임행위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위해서는 TPB의 주요 변인인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피임의도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제 언

- 1)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TPB를 검증한 결과 피임의도 예측에 지각된 행위통제와 주관적 규범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를 보였는데, 피임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 이 두 요인에 대한 강조가 요구된다고 보겠다.
- 2) 본 연구결과 피임에 대한 태도는 피임의도 예측에 있어 유의한 경로계수를 보이지 않았는데, 대상자의 수를 늘린 반복연구가 의의있을 것이라 고려된다.
- 3)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피임행위 양상이 고착되기 이전인 청소년이나 미혼여성, 혹은 피임에 실패하여 인공유산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재반복 연구가 의의 있을 것이라 고려된다.
- 4)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인 피임행위에 대한 검증을 하였으나 어느 특정 피임법에 대한 피임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TPB변인의 설명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 적용에 주의를 요하며, 이를 위해 각각의 특정 피임법에 대한 TPB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조자 (1995). 건강관련 이론과 연구. 간호학 탐구, 4(1), 10-18.
- 남은숙 (1994). 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적용한 교육프로그램이 모유수유행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현상, 변용찬, 송위섭, 윤종주, 전학선, 정기원 (1993). 최근의 인구 동향에 관한 종합 분석. 서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박민향 (1985). 인공유산과 피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 서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조문형 (1991). 기혼여성의 인공유산 경험 및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 논문.

- 지연옥 (1993). 군휴연자의 금연행위예측을 위한 Theory of Planned Behavior 검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최동희 (1985). 초기 인공임신 중절 피시술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가족학 연구회 (1994). 가족학자료분석 방법. 서울 : 하우.
- 홍문식, 이상영, 장영식, 오영희, 계훈방 (1994).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 N. J. : Prentice-Hall.
- Ajzen, I. & Madden, T. J. (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453-474.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J. Beckmann(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New York: Springer-Verlag.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sion Processes, 50, 179-211.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Beckman, L. J., Ajzenberg, R., Forsythe, A. B., & Day, T. (1983). A theoretical analysis of antecedents of young couples' fertility decisions and outcomes. Demography, 20, 519-533.
- Bruyniks, N. P. (1994). Reproductive health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 priorities and need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23, 203-215.
- Burzette, R. G. (1994). Undergraduates' condom use :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role of perceived vulnerability to AI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hicago.
- Carter, W. B. (1990). Health behavior as a rational process :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In K. Glanz, F. M. Lewis, & B. K. Rimer,(Ed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Davidson, A. R. & Jaccard, J. J. (1975). Population psychology :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073-1082.
- Fishbein, M., Jaccard, J. J., Davidson, A. R., Ajzen, I. & Loken, B. (1980). Predicting and understanding family planning behaviors : Beliefs, attitudes, and intentions. In I. Ajzen. & M. Fishbein(Eds.),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ewJersey: Prentice Hall.
- Jaccard, J. J. & Davidson, A. R. (1972). Toward an understanding of family planning behaviors : an initial investig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 228-235.
- Jemmott, L. S. & Jemmott, J. B. (1991). Apply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o AIDS risk behavior : Condom use among black women. Nursing Research, 40, 228-234.
- Levinson, R. A. (1995). Reproductive and contraceptive knowledge, contraceptive self-efficacy and contraceptive behavior among teenage women. Adolescence, 30(117), 65-85.
- Neal, A. G., & Groat, H. T. (1977). Alienation and fertility in the marital dyad. Social Forces, 56, 77-84.
- Oakley, D. (1994). Rethinking patient counseling techniques for changing contraceptive us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170(5), 1585-1590.
- Otis, J., Godin, G. & Lambert, J. (1991). AIDS prevention : Inten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to use condoms. Advances in Health Education, 11, 61-74.
- Sawyer, R., Beck, K. H. (1988). Predicting pregnancy and contraceptive usage among college women. Health Education, 19, 42-47.
- Severy, L. J., & Silver, S. E. (1993). Two reasonable people : Joint decision making in contraceptive choice and use. In L. J. Severy(Ed.), Advances in Population : Psychological perspectives, Vol.1,(pp.207-227). Philadelphia,

- PA: Jessica Kingsley.
- Townes, B. D., Beach, L. R., Campbell, F. L., & Martin, D. C. (1977). Birth planning values and decisions : The prediction of ferti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7, 73–88.
- Zotti, M. E., & Siegel, E. (1995). Preventing Unplanned pregnancies among married couples : Are services for only the wife sufficient?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8, 133–142.

– Abstract –

Key concept : Theory of Planned Behavior, Contraceptive Behavior

Tes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ontraceptive Behavior among Married Women.

Kim, Myoung Hee · Paek, Kyung 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ontraceptive behavior among married women.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Eighty married women in Seoul and Kyungki-do participated in this study. Research instruments

used were the tool for measuring TPB variables search as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intention; and the tool for measuring contraceptive behavior. The former was modified by the researcher according to Ajzen & Fishbein(1980)'s guidelines for tool development and Jee(1993)'s tool. The latter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Data was collected from July 20, 1996 to October 25, 1996.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 three factors,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contraception can explain 30% of the variance in contraceptive intention. Inspection of path coefficient for each of the three predictor variables revealed that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ere the predictor variables on intention, while attitude was not. ; and inten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actors can explain 42% of the variance in contraceptive behavior. Inspection of path coefficient for each of the two predictor variables revealed that inten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ere the predictor variables on behavior.

In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ory of Planned Behavior was a useful model in the prediction of contraceptive behavior, and the contraceptive service program based on the TPB variables would be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change in contraceptive behavior.

*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Tel : 0443-649-1352, 0443-649-1353.
Fax : 0443-649-1785